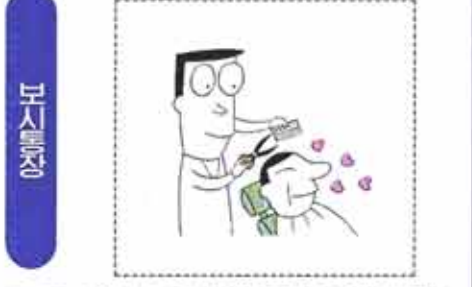


“돈 많이 모아서 보시한다면 언제 남을 들겠어요.”
 지난 1일 오전 서울 구로역 해경백화점 7층에 위치한 해디자이너스클럽. 원장 전상삼씨(37)가 하던 일을 멈추고 7월 한달간의 수익금을 계산한 후 그 중 일부를 봉투에 넣어 아래층 은행으로 내려갔다. 전씨가 매달 은행에 따로 입금하는 이 돈은 이른바 '보시 용장'에 들어가 각 사회·복지단체로 지원된다.



최근에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KBS에 1백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올 2학기부터는 중앙승가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비구니스님의 학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매년 연말에는 '보시 용장'이 모여진 기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지역 해명보육원, 동지청소년의집 등 교계 고아원에 기탁한다. 고아원, 경로당에서는 특별한 행사 때마다 수시로 그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그래도 싫은 내색 하나 없다.

18년전부터 미용사 일을 해오다 7년전에 지금의 사업을 시작했다. 매달 보시금을 따로 빼내었고 통나는데로 곳곳에 미용봉사를 다녀오지만 사업은 오히려 번창했다. 그는 “예쁜 것이 10배는 되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다”고 말한다. 그가 이같은 무주상보시를 펼쳐게 된 것은 6년전부터 다니는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원장 대영스님의 ‘농고 살라’는 법문을 듣고 부터였다.

그는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다. 40대 이후에는 수해에 전념하고 싶다는 그는 매달 10회 이상 수선회에서 참선에 열중하는 생활속의 수행자이기도 하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a.com

폭우로 60여사찰 피해

경기북부 '심각'...보광사 재산 손실 13억원
 복구장비·인력부족...사찰 재난대비책 절실

7월달부터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12일 현재까지 전국 64곳의 사찰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극심한 호우 피해를 입은 곳은 경기북부와 강화도 지역의 사찰들. 경기북부지역의 파주 보광사의 경우 사찰 뒷편에서 쏟아져 내린 산사태로 요 사재가 무너져 내려 장자고 있던 하림스님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보광사는 임시법당과 축대가 유실되는 등 총 1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통사 보문사 등 10여 사찰이 축대 붕괴와 도로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강화지역은 집중호우가 내린 8일과 7일 이틀간 교통과 전기 정화등이 단절돼 큰 불편을 겪었다. 1일밤 지리산 일대에 쏟아진 폭우는 화엄사 연곡사등 9개 사찰의 도로와 축대를 파손해 일부 사찰의 진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각 종단은 피해상황을 파악,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복구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통산과 교통 두절로 인해 피해상황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7월달부터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계절성 호우는 사찰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7월30일 경주지역에 내린 비로 지붕이 내려 앉은 경주 심불사 요사채.

조계종 상징문장 내년부터 사용

올내 개발 마무리
 조계종은 소속 사찰과 종단 이미지를 통일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종단 문장 개발을 급선무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문장 개발은 종단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최대한 수용하고 시각적으로 종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9월까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10월 종단차원의 결정을 거쳐 11월에는 관련 종법의 개정과 시행지침을 마련 할 계획이다. 종단 문장이 사용될 경우 비동복사찰과 동복사찰의 구분이 명확해져 사찰사양의 종단등록 작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종명 사용의 통제 등 종단 운영의 투명성과 사찰과 포교단의 문서 통일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임연태 기자

계의 재난에 대비한 종합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산사태나 도로유실등에 집중된 점을 주목, 이에대한 각별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특별취재팀
 (yilm@buddhapa.com)

현대불교 지면 일부 개편

지면면 확대·'독자마당' 매주 게재
 현대불교 신문이 들어오는 지방 소식을 충실하고 상세히 보도하기 위해 지면면을 확대하는 등 일부 지면을 새롭게 편성합니다.

- 지방소식 22면
 각 지역의 행사와 사건은 물론 지역 인사의 동향과 사할 소식을 상세히 안내하는 지방면을 22면에 꾸밈니다.
- 일부지면 조정
 △6면은 열린마당과 독자페이지를 통해 고계 여론을 반영하고 △18면의 세상보기와 시선은 불교에서 보는 시사문제를 심층분석합니다. △21면에는 독자여러분의 신행을 즐기 위해 주간 신행칼럼더를 신설했습니다.

불교문화 체험기행

9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여주 신희사, 고달사지, 목야 박물관을 찾아가입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불상을 비롯 회화·공예·민속품 등이 전시돼 있는 목야박물관(관장 박진수)에서 하나의 나무가 불상이 되기까지의 제작과정을 알아봅니다.

탐을 구성한 벼들의 무리가 수려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다촌정담(보물 제226호)과 남한강가의 비유팔벽에 위치한 정자 강월헌(江月軒), 나옹화상의 입적처로 유명한 여주 신희사와 부도(국보 제7호)를 비롯해 원종대사 혜진탑(보물 제7호) 등 국보급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고달사지도 답사합니다.

9월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
 '신희사·목야박물관·고달사지'
 ◇출발: 9월13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비: 3만원(점심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0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수채민을 돕습니다
 • 조계종: 국민은행 023-01-0553-244(불교중앙교민) • 불교인권위원회: 제일은행 128-20-303720(박용모)
 • 불교TV: 국민은행 827-25-0018-788(불교텔레비전) • 불교방송: 국민은행 827-25-0022-504(불교방송)

도서출판 **세존**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 전화 3462-2277 / 팩스 3462-2279

역사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담회가 있다.
 맹랑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 - <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달은 글 있었다 - <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 - <경향신문> 4.17.
 · 죽을 또한 자연 어닌가/ 잘자, 옥상산과 왕수연, 소강철과 서희달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 - <현대불교신문> 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 - <서울신문> 5.5.

· 신국판 | 304쪽 | 값 7,000원
 · 저자: 맹 란 자

지금도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 단체특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 (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①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②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